

광주시, 군공항 이전지역 1조 지원... 전남도 “유감”

기존 사업비에 5500억원 추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 강조
신도시 조성·공공기관 이전 약속도 “7년전 산출액 근거 부적절”

광주시가 광주군공항 유치지역에 1조원의 재정지원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시는 이번 지원책을 ‘통 큰 지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남도는 사업비 산출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향후 시·도간 지원 폭과 규모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시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16년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에 의한 차액으로 발표한 4508억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한 1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조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지역개발사업지원금 4508억원은 국방부가 지난 2016년 산출한 금액이다.

강 시장은 “군공항 유치의향서가 제출

되는 시점부터 햇빛연금·스포츠타카데미·MRO산단·국제학교 등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은 유치희망 지자체·전남도·중앙부처와 협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해 가구별·개인별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공주택을 포함한 이주단지·영외관사·정주시설 등을 집적화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일부 공공기관을 군공항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강 시장은 “연간 5000여명이 교육을 받는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을 유치지역에 신축하는 등 광주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며 “이전지역에는 110만 평(3636㎡)의 소음완충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훈련시간과 비행경로 조정 등 국방부·공군본부와 협의해서 소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면 그 지역에 맞춰 지원대책은 다시 다듬어질 것이고 지원 규모도 당연히 커질 수도, 줄어든 수도 있다”며 “오늘 발표는 군공항을 유치할 지역에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천명하는 의미도 있다”고 발표의 의미를 강조했다.



장마 속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내린 26일 광주 시민들이 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까지 시간당 최대 3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책을 놓고 전남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남도는 강 시장이 발표한 ‘1조원 규모의 광주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책’ 내용에 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지원 사업비 산출 근거를 7년 전인 2016년에 발표한 4508억원 기반으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광주시의 발표문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

해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도가 광주시에 추가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장성에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정책 첫 사례

도-카카오엔터프라이즈 협약
신재생에너지 풍부 공급 강점
4900억 투자·100명 신규 고용

전남도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강점으로 전력 다소비시설인 첨단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전남도는 26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장성군 남면에 3만3000㎡ 규모의 클라우

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정책을 실현한 첫 사례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데이터산업 생태계 마련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김한중 장성군수, 강유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 배명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부사장, 김창호 파인애플파트너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문성철 KB증권(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파인애플파트너스자산운용의 데이터센터 투자 개요 브리핑,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된 협약식에서 파인애플파트너스자산운용·KB증권은 장성에 4900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100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설계 및 기반

시설 구축과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전남도, 장성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인애플파트너스자산운용, KB증권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기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데이터산업을 전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시 예비전력을 지원하는 전력공급 방안 특례를 적용한다.

천영길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장성군 데이터센터 구축을 환영하며, 정부도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전력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분산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명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은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데이터센터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선두 주자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파인애플파트너스자산운용, KB증권과 함께 구축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장성에 들어 서게 돼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게 됐다”며 “전남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황지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미널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